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의 혁명사상

으로 철저히 무장하자!

로동신문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기관지

제280호 [부제 제25423호] 주제 105 (2016)년 10월 6일 (목요일)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령도따라 주체혁명

위업을 끝까지 완성하자!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동상을 개 성 시 에 높 이 모 시 었 다

【개성 10월 5일발 조선중앙통신】조선로동당 제7차대회가 열린 위대한 진로따라 온 나라 천만군민이 주체혁명위업의 최후 승리를 향하여 총매진하고 있는 장엄한 시기에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동상을 개성시에 높이 모시었다.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김정일동지의 동상을 분개연선도시에 정중히 모신것은 조국의 무장반역과 인민의 행복, 나라의 통일을 위해 모든것을 바치신 위대한 수령님들을 백두산대국의 영원한 대양으로 천세만세 우뚝이 모시며 경애하는 김정은동지를 총지휘하게 받들어 백두의 대업을 끝까지 완성해나가는 개성시인민들의 순결한 충성심과 절대불변의 신념과 의지의 발현이다.

개성시에 높이 모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동상제막식이 5일에 진행되었다.

제막식장은 성스러운 혁명병도의 길에서 개성시를 찾았듯이 인민의 행복넘치는 력원의 도시로 전진시켜주시고 민족의 숙원인 조국통일위업을 이룩하시기 위하여 불면불욕의 헌신과 로고를 바쳐 오신 위대한 수령님과 어머니장군님께 대한 다함없는 그로움과 경모의 정으로 새차재 끓어번지고있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태양상과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태양상이 제막식장에 정중히 모셔져있었다.

《위대한 김일성-김정일주의 만세!》, 《우리 당과 인민의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 만세!》라는 구호판들이 세워져 있었다.

또한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께 최대의 경의를 드립니다》,《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령도따라 주체혁명위업을 끝까지 완성하자!》라는 구호판들이 세워져 있었다.

제막식장에는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께 경의를 드립니다》,《위대한 김일성-김정일주의 만세!》,《우리 당과 인민의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 만세!》,《위대한 김정은동지를 수반으로 하는 당중앙위원회를 목숨으로 사수하자!》라는 구호들과 《경사옹위》,《입심단결》이라는 글판을 드려온 대학생들이 떼였었다.

위대한 수령님들의 동상앞에는 조선인민군 육군, 해군, 항공 및 반항공군, 로동



전선지대의 특성에 맞게 사상공요사업을 강화하여 인민들의 사상의식수준과 정치적각성을 더욱 높일데 대하여 가르쳐주시고 평화비와 선적비를 비롯한 여러 단위 인민들의 생활을 친어버이심정으로 따듯이 보살펴주시면서 시의 경제발전을 위한 온갖 조치들을 취해주시었다.

연설자는 지난날 막후한 소비도시였던 개성시가 오늘 현대적인 경공업도시로, 찬란한 민족문화를 자랑하는 력사문화도시로 훌륭히 꾸려지고 인민들의 생활에서 커다란 진전이 일어나게 된것은 한평생 애국헌신의 길을 끊임없이 이어 오신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의 현명한 령도 없이는 생각할수 없다고 강조하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백두산집세위인들의 태양의 모습을 언제나 품고 계시고 계시어하는 시안의 전체 당원들과 인민군장병들, 인민들의 절절한 념원을 헤아리시고 여기 자남산연령에 위대한 수령님들의 동상을 모시도록 크나큰 영광을 안겨주시었다고 그는 말하였다.

그는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숭고한 뜻과 뜨거운 은정을 심장깊이 간직한 시안의 인민들과 불려대원들, 인민군장병들이 위대한 수령님들의 동상을 최상의 수준에서 정중히 모시기 위한 사업에 온갖 지성을 바친데 대하여 언급하였다.

연설자는 개성시인민들과 온 나라 천만군민의 열화같은 총성의 마음을 담아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 가장 숭고한 경의와 영원무궁한 영광을 드려였으며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 최대의 영예와 가장 뜨거운 인사를 삼가 드렸었다.

그는 위대한 수령님들을 따라 승리와 영광의 천만리를 걸어온것처럼 령도따라 백두의 혁명정신, 백두의 칼바람정신으로 주체혁명위업의 최후승리를 일당겨나가기 위한 과업에 대하여 언급하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었다.

《위대한 수령님들께서 현생을 떠나서 오신 주체의 사회주의위업을 완성하는것은 우리 당과 군대와 인민의 역사적사명입니다.》

연설자는 전체 당원들과 인민군장병들, 인민들이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를 주체의 영원한 태양으로 높이 받들어 모시고 수령님들의 혁명사상과 업적을 전철적 옹호고수하며 끝없이 빛내어나가는데 대하여 강조하였다.

위대한 김일성동지의 후손, 위대한 김정일동지의 전사, 제자당개 수령님들과 장군님의 유훈을 강령적지침으로 틀어쥐고 한치의 드림도 없이, 한결같은 양보도 없이 무조건 끝까지 관철해나가기 하겠이라고 그는 말하였다.

그는 우리 인민의 운명이라고 미려이시며 백두산대국의 모든 승리와 영광의 기지이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를 정치사상적으로, 목숨으로 경사옹위하며 원수님의 사상과 령도를 총지휘해 받들어안고대 대하여 언급하였다.

시안의 일군들과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에서 제시하신 전류적과업을 높이 받들고 일떠와 초소미다에서 만리마속도장조의 불기를 새차재 지져올려야 하겠이라고 그는 말하였다.

그는 당의 전류적요소와 함축도 북부부해 복구건설에 총력을 집중하며 총성의 200년 전부를 승려적으로 견속함으로써 세상이 붕괴되는 일심단결의 거대한 위력을 다시한번 세계만방에 과시함에 대하여 언급하였다.

연설자는 모두가 위대한 수령님들의 자애로운 태양의 영광을 언제나 우리리며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두리에 더욱 굳게 붙쳐 사회주의강국건설과 조국통일을 위하여, 주체혁명위업의 완성을 위하여 힘차게 싸워나갈데 대하여 강조하였다.

제막식은 《수령님과 장군님을 함께 계시네》노래주악으로 끝났다.

참가자들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동상에 대한 해설을 듣고 경건한 마음으로 수령님들의 동상들을 돌아보았다.

적위군대에위병대가 정렬해있었으며 군가들이 세워져있었다.

기발게양대에는 조선로동당기와 공화국기가 나뉠고있었다.

제막식에는 김일성동지, 최룡해동지, 김기남동지, 리명수동지, 김영철동지, 로두원동지와 방대익 황해북도당위원회 위원장, 임훈 황해북도인민위원회 위원장, 개성시, 관내부인 일군들, 동상을 모시는 사업에 기여한 단위 일군들, 근로자들, 조선인민군, 조선인민내무군 장병들, 근로자들, 청년학생들이 참가하였다.

《김일성장군의 노래》와 《김정일장군의 노래》주악으로 제막식은 시작되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동상제막을 당과 국가, 군데,

황해북도, 개성시의 책임일군들이 하였다.

제막식에서 벗겨지자 주체의 영원한 태양이시며 우리 인민의 모든 승리와 영광의 상징이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동상이 찬연히 빛을 뿌리었다.

하늘향을 진감하며 우렁찬 《만세!》의 환오성이 리저오르고 수많은 고무총선들이 날아올라 제막식장사공을 환희롭게 장식하였다.

이어 황해북도와 개성시의 당, 정권기관, 근로단체, 기관, 기업소, 공장, 농장, 대학들과 조선인민군, 조선인민내무군 부대들의 명의로 된 꽃바구니들이 진정되었다.

꽃바구니들의 덩이에는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는 영원히 우리의 함께 계신다》,《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는 영생할것이다》라는 글방이 띄여져있었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내각의 공동령의로 된 꽃바구니와 개성시인민들의 명의로 된 꽃바구니가 진정되었다.

이어 황해북도와 개성시의 당, 정권기관, 근로단체, 기관, 기업소, 공장, 농장, 대학들과 조선인민군, 조선인민내무군 부대들의 명의로 된 꽃바구니들이 진정되었다.

꽃바구니들의 덩이에는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는 영원히 우리의 함께 계신다》,《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는 영생할것이다》라는 글방이 띄여져있었다.

자애로운 영광을 숭엄히 우리리며 절세위인들의 영광찬란한 혁명애와 불멸의 업적을 경건한 마음으로 돌이켜보고 있다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일찌기 혁명의 길에 나서신 위대한 김일성동지께서는 영생불멸의 주체사상, 선군사상을 창시하시어 조선혁명의 진로를 밝혀주시고 두차례의 혁명전쟁과 두단계의 사회혁명, 두차례의 복구건설과 사회주의 건설을 빛나는 승리로 이끄시어 우리 나라를 자주, 자립, 자위의 사회주의국가로 전진시키시었다.

위대한 수령님의 사상과 위업을 계속 완성하는것을 평생의 사명으로 내세우신 위대한 김일성동지께서는 어머니수령님의 혁명사상을 우리 시대의 지도사상으로 빛내이시고 우리 당과 국가, 군대를 김일성동지의 당과 국가, 군대로 강화발전시키시였으며 특창적인 선군정치로 우리식 사회주의를 굳건히 수호하시고 나라의 존엄과 국력을 최상의 경지에 올려세우시었다.

연설자는 식민지약소국으로 빛을 잃었던 우리 나라를 일심단결된 불멸의 정치사상강국, 군사강국, 핵보유국으로 일떠세우시고 사회주의강국건설의 활로를 열어주신 위대한 수령님들의 혁명업적은 천추만대에 길이 빛날것이라고 강조하였다.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의 거룩한 령도의 자욱은 여기 개성땅에도 맥맥히 아로새겨져있다고 하면서 그는 다음과 같이 계속하였다.

일찍부터 분개연선지대의 경제사업과 인민생활향상에 깊은 관심을 품어오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혁명전쟁의 전기간 10여차례에 걸쳐 시안의 여러 부문 사업들 현지지도하시면서 나아갈 방향과 방법을 환히 밝혀주시었다.

위대한 수령님의 불멸의 령도자욱은 몸소 띠안을 잡아주신 개성방직공장과 농민들과 리물없이 마주앉아 농사일을 의논해주시고 터럭을 비롯한 수많은 농장마을들, 1,000여인의 력사를 되찾아주시고 고려성군관과 아이들의 행복의 노래소리 높이 울리는 개성학생소년궁전, 동원소학교 등 개성땅의 이르는 꽃마디에 뜨겁게 아로새겨져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주체49(1960)년 9월 어머니수령님을 모시고 개성시를 찾아 주신 그때로부터 여러차례에 걸쳐 시안의 많은 단위들을 현지지도하시면서 크나큰 사랑과 은정을 베풀어주시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당조직들에서 분개

전체 참가자들은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에 대한 다함없는 경모심을 안고 수령님들의 동상앞에 우뚝이 삼가 인사를 드렸었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의 위원이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인 김영남 동지가 제막사를 하였다.

연설자는 온 나라 전체 군대와 인민이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 제막식에서 위대한 수령님들의 불멸의 령도자욱은 몸소 띠안을 잡아주신 개성방직공장과 농민들과 리물없이 마주앉아 농사일을 의논해주시고 터럭을 비롯한 수많은 농장마을들, 1,000여인의 력사를 되찾아주시고 고려성군관과 아이들의 행복의 노래소리 높이 울리는 개성학생소년궁전, 동원소학교 등 개성땅의 이르는 꽃마디에 뜨겁게 아로새겨져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주체49(1960)년 9월 어머니수령님을 모시고 개성시를 찾아 주신 그때로부터 여러차례에 걸쳐 시안의 많은 단위들을 현지지도하시면서 크나큰 사랑과 은정을 베풀어주시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당조직들에서 분개



위대한 김일성-김정일주의 만세! 우리 당과 인민의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 만세!

